



◇ 지난 9일 열린 '종교와 국가' 국제학술회의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는 이기영박사의 마지막 모습. 이박사는 이날 학술회의에서 기조강연을 마친후 쓰러져 74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 故 불연(不然) 이기영박사의 영결식이 지난 11일 가족·지인·후학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의료원에서 거행됐다.

故 이기영박사 평생 원효와 살다간 큰 별

不然 이기영교수 떠나던 날

군인들에게 있어서 전쟁터의 죽음은 오히려 영광이다. 학자로서의 최후를 세미나장에서 맞은 불연(不然)선생님은 선사로서의 최후를 맞이할 수 있다. 너무도 아쉬운 생의 종착역이었지만 그다운 작별의 몸짓이다.

평소 입버릇처럼 당신의 몸이 사대(四大)로 되돌아가거든, 경주남산에 뿌려 달라고 하셨다. 이기영 선생님은 학자로서뿐 아니라 구도자로서의 경건한 삶을 사셨다. 이시대의 보살이었다. 그는 부처님 가르침에 '미친' 사람이었다고 신라불교에 미쳤고, 3대어 원효스승에 미친 사람이었다.

그날 아침, 국제세미나의 주제는 '종교와 국가'였다. 그 분은 종교의 기여, 특히 불교적 입장의 천명을 대해서 말씀하셨다. 종교가 어차피 인간의 중요한 삶을 위해 기여한다면, 오히려 그 종교가 자신의 영역넘히게만 한눈을 팔 수 있겠느냐는 반문이다. 그는 일심(一心)의 삶, 정토의 구현이라는 불교적 이상을 최고의 모델로 제시한다.

그 확신에 찬 음성과 부처님처럼 원만한 상호를 이제 다시 볼 수 없게 되었다. 자비 의 표 현. 그는 풍운의 삶을 살았다. 일제의 강점 속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순탄치 않은 학구의 길을 걸어야 했다. 영웅은 언제나 시대의 질서를 받는 법인지도 모른다. 방황하던 그의 삶이 평온을 되찾은 것은 부처님과의 만남으로부터였다. 역사선생을 핑계치고 프랑스 유학에 올랐지만 불교공부를 결심한 것은 기이한 인연이다. 금세기

정토구현역설 세미나장서운명

최고의 불교문화학자 라모프 교수에게 사사한지 6년만에 철학박사가 된다. 그러나 금의환향 직후 동국대학에서 아픔을 겪었다. 가톨릭 후원으로 유학을 갔던 그 종교전력에 대한 시비 때문이었다. 만년에 그는 당시의 '사건'을 자신의 만용과 부덕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실력이 있다는 자만심의 과보였다고 절결 웃어제끼곤 했다.

그분을 곁에서 모신지 올 해로 꼭 30년. 나는 그 학문적 정성과 기개에 늘 주눅든 채 살아왔다. 최근까지도 그는 늘 필자가 '공부에 등한하다'고 나무라셨다. 꾸짖을 스승을 가졌다는 나의 행복은 이제 무참히 구겨져 버렸다. 평소에는 너그럽기 한량 없는 분이셨지만 '공부하는 일'에는 너무도 엄격하셨다. 평생 단 한번도 그의 손에서 떨어지지 않았던 대장경의 페이지 마다에는 온통 형광펜과 메모로 가득하였다.

그는 불교학 연구의 새 지평을 개척하였다. 문헌학 위주의 불교학에 역사적 방법을 도입하였던 것이다. 해박한 산스크리트어, 프랑스어, 일본어, 영어, 한문실력은 사상

정토구현역설 세미나장서운명

정병조 (동국대학교·사회교육문화원장)

弔詩

해 하늘이 삼천대천 세계에서 빛나는 광명인가 달빛 은하계 멀리멀리 맑게하는 고요함인가. 여찌 이렇게 우리의 가슴에 빛과 맑음을 거두어가는 숨소리 막히어 모두를 멈추게 하고 숨 막히게 하는 소식인가. 不然선생님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그렇지 않다고 보시지는 法華經을 읽습니까. 그 옴 元號의 새벽앞에 향불 사루며 예경하던 문준한 체구에 왜 숨을 죽이고 있습니까. 일심귀원의 참뜻을 한 번 보시시라고 짐짓 한 번 앉으면서 심통을 전하는 기별입니까. 국가 그것 무엇이며 종교 모든 울타리 넘어서야 된다고 오늘 오전 9시에 큰 소리로 할 하시면서 학술열반하신 不然 스승이시여 대안열반하소서.

1996. 11. 9 목정배 문한

연보

- 1922 황해도 풍산군 만천면 유정리 출생
- 경성제대 법문학부 사학과(동양사학) 전공
- 1954~1960 벨기에 루베크 대학 철학 전공, 철학박사 취득
- 1960~1987 동국대, 영남대, 국민대 교수
- 1974 한국불교연구원 창립(원효학당, 구도회 설립)
- 197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연구3부장
- 1982 동국대 신라문화연구소장

생애와 사상

10년전 이기영 박사는 동국대학교를 정년퇴직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 "죽음이란 시험답안지에 이름 적자 써놓고 교실을 나가는 것입니다. 한번 나가면 답이 틀렸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원효학의 대가이자 대승보살운동의 선각자였던 이기영 박사(74). 한마디로 그는 원효와 한평생을 함께

평생의 화두였다. 이 선생은 이박사에게 원효연구에 대한 역사적 접근과 교리 분석을 넘어 원효사상의 참된 의미를 밝히기 위한 각고의 학문적 연구에 깊이 몰두했다. 인도경전을 원전으로 해독하고, 우주통합의 원리인 원효의 화쟁사상과 성(聖) 속(俗) 등의 이분법적 구분을 단호히

"귀일심원 요익중생" 좌우명

저서 '원효사상연구' 불교학 새 지평 대승보살운동 이끈 '이 시대 보살'

게 하며, 원효사상을 이 땅 위에 실천하고자 했던 한국불교계에 불멸의 금자탑을 쌓은 큰 별로 평가된다. 이박사는 '귀일심원 요익중생(歸一心源 饒益衆生)'과 '화쟁(和靜)'의 원효사상이 인간이 가야 할 목표와 삶의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고 확신했다. 그는 늘 일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삶의 목표라면 요익중생은 삶의 방법임을 살해했다. 나 보다는 남을 이롭게 해야 한다는 신념은 그가 원효로부터 받아 든

거부하며 원효학연구에 몰두, 마침내 지난 94년(원효사상연구)를 내놓음으로써 한국불교 연구에 새 지평을 열었다.

그러나 그는 학문연구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았다. 74년 한국불교연구원을 창립하고 원효학당과 구도회를 설립, 지금까지 3백50여명의 원효학도를 양성해 냈고 수많은 대중을 바른 불자로 인도했다. 또 30여년 동국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부처님 양자로 인도했

을 뿐만 아니라 전국교사불자회 재가회를 창립시켜 불교대중화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대승불교의 이념을 실천하고자 한 이박사는 보살도 실천의 주창자로서 일반에게 각인되기 시작했다. 또한 이박사는 다원화된 현대적 이념과 원효사상의 일치점을 탐구하면서 '실천적인 학자'로서의 길을 가고자 했다.

벨기에 루베크대학 유학 당시 가톨릭 철학에 매료돼 마침내 불교에 귀의했다. 그리고는 목욕이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열정으로 세월을 채웠다.

한영우 기자

사찰부동산 등 불교의 재산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 속에서 무수한 사부대중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정재(淨財)이다. 따라서 이를 잘 가꾸고 발전시켜 불교를 위해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은 오늘을 사는 불자들의 당면과제중 하나다.

11월 20일 중앙승가대에서 열리는 조계종 중앙총회 재정분과 위원회(위원장 영담)와 중앙승가대 불교사회과학연구소(소장 류승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국불교 사원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는 사원경제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생산적 활용방안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사원경제 활성화방안' 세미나 중계

현재 사찰토지가 수만을 당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종단의 보유토지에 대한 정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응철 교수(중앙승가대 전산위원장)는 '불교 사찰부동산의 실태와 활용 방안 -조계종단의 토지문제를 중심으로-'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종단보유의 토지를 관리, 감독, 기획, 집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거의 없는 데다 정부의 토지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전문인력 확보 및 토지현황에 대한 자료 축적 등 시급한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사찰토지의 가치를 운영에 재가신도들의 참여를 의미)와 평가(기업경영식 평가, 재가불자중심의 경영자문단 운영)에 기초를 두는 고객(신도)지향적이어야 함은 당연한 것이며, 이것이 바로 살기좋은 사회로의 회향이라는 주장이다. '생산불교'의 개념은 생산적 경제활동을 통해 사원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사고체계다. '사원경제의 활성화' 역시 이같은 위기의식에서 출발한다. 류승무교수(중앙승가대 사회복지학)는 한국 사원경제 침체 위기의 구조적 원인을 불교 내·외적 요인으로 구분해 분석하고 있다. △외적 요인으로 토지자본의 축소와 가치하락을 꼽았다. 정

"사찰토지 생산성 높여야"

- 김응철교수 종책수립·관리인력 확보 시급
- 노부호교수 재가 운영참여·경영평가 도입
- 류승무교수 주말농장 등 상업 자본화 필요



◇노부호 ◇류승무 ◇김응철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주거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토지에 사찰을 신축하거나 복지, 수익, 문화, 체육, 장의시설 등을 다양하게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 김교수의 주장이다.

가치창출은 '생산성'의 확대와 연관된다. 물론 이윤을 남기지는 의미가 아니라 합리적·효율적 관리를 통해 획득된 자산을 바탕으로 사회구제활동 등을 전개해 살기좋은 사회를 이룩한다는 의미다. 노부호교수(서강대 경영학)는 논문 '사원경제의 합리화와 경향과 생산불교의 필요성'에서 불교의 가치실현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불교가 가지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함으로써 미래비전과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생산불교의 방향은 자율(종단과 사찰

부의 반불교정책과 각종 불교재산관련 법률에 따른 피해,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 토지자본의 상대적 가치하락 등이 그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내적 요인으로는 한국불교의 특수한 역사적 배경을 들었다. 불교계 내부의 정치적 갈등과 토지자본의 생산성 하락에도 불구하고 산업자본이나 상업자본으로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극복방안으로는 △사찰토지의 상업자본으로의 전환(종합수련원, 주말농장, 신용협동조합 등)과 △명확한 불교재산 파악과 이를 교구부나 종단차원에서의 관리 △사회경제적 환경에 맞는 불교사상의 재해석 등을 제시했다.

◇기사남처 '한국 사찰의 주권' 부디피아 사이버 기행' 읽는다.

창립 10주년 기념 포시즌 콘도에서 불자님 가정에 특별혜택을 드립니다.

카드한장으로 국내외 16개의 최상의 콘도가 생깁니다.

창립 10주년 특별혜택

- 무이자·무보증 계약 즉시 카드 발급 및 사용
- 성수기 제외 사용일수외 추가 권리보장
- 무공해 주말 농장 이용
- 일시불시 10% 할인
- 신용카드 가능(18개월 할부)

회원가입 서류

- 주민등록등본, 도장

※ 제주 2개 사용

- 포시즌 호텔
- 서귀포 리조트

회원사업부 : (02) 3452-8998(대)

직 통:(02) 562-3225 법명 도인

가죽과 함께 자연과 함께 포시즌콘도미니엄 (株) 伽元佳電 (株) 伽元리지産業 (주) 와이·케이·물산